

감성지능의 이해와 음악교육의 역할

승 윤 희*

차 례

- I. 서 론
- II. 감성지능의 이해
 - 1. 이성과 감성
 - 2. 감성지능의 개념과 이론
 - 3. 감성지능의 기원: 사회지능
- III. 감성에 관련된 뇌 연구
- IV. 음악교육의 역할
 - 1. 음악교육과 감성지능
 - 2. 음악교육과 학업지능
 - 3. 음악교육과 도덕지능
- V. 결 론

I. 서 론

지난 20세기가 이성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21세기는 감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한다. 이제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심리학계뿐만 아니라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미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감성지능은 그 동안 감성보다는 이성의 발달을 주목표로 삼아온 교육활동과 기존의 사회관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었다. 감성지능은 새로운 지능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감성교육은

* 연세대학교, 상명대학교 강사

미래형 인간교육론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감성지능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사회에서 널리 신용을 받아온 학업지능 (Academic Intelligence) 즉, 지적능력을 의미하는 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 IQ)가 인간의 성공이나 궁극적인 행복을 충분히 예견해주지 못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감성지능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에 비하여 아직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용어가 상당히 혼동되어서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것은 감성지능에 관한 논의가 극히 최근에 대두된 것이 그 이유일 수 있으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감성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성과 창의성의 계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전인의 육성, 풍부한 음악적 정서함양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음악과 교육은 교육목표 분류학의 정의적 영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교과목으로 여겨져 왔다. 정서가 개발된다는 것은 슬픈 영화를 보거나 슬픈 음악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단순히 슬픔이나 기쁨 같은 구체적인 감정들의 본질에만 민감해지는 것이 정서의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서의 개발은 보다 실제적인 개인의 능력과 관계한다. 음악교육은 음악적 정서의 개발을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삶의 정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다. 궁극적으로 음악적 정서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서를 의미하며 이것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아름다운 심성을 포함하는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정서의 개발은 감성지능의 개발과 깊은 관계가 있다. 최근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성지능이란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성지능의 개념과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고, 감성지능의 개발과 함께 음악교육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담당해야할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II. 감성지능의 이해

1. 이성과 감성

감성은 때때로 감정 또는 정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감정이란 용어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노, 슬픔, 공포, 기쁨, 사랑, 놀람, 혐오, 수치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 인간의 기본적 감정들을 의미하며¹⁾ 정서

1) Daniel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pp. 289-90.

는 감정 그 자체들, 기분, 평가, 그 밖의 피로나 활기 같은 감정상태들을 포함한다.²⁾ 따라서 정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정의 혼합, 변형, 미묘한 차이까지 따르면 수많은 정서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서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골먼 (Daniel Goleman)은 정서를 “감정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사고, 심리적/생리적 상태 그리고 일련의 행동성향”으로³⁾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의 의견의 일치점은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정서에는 기본적인 감정들, 감정들의 혼합, 충동, 이들의 상호작용들이 포함되며, 정서는 감정이나 충동과 같은 정서의 한 요소가 지각/인지되거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상태 혹은 과정들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으로⁵⁾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감성과 가장 근접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감성의 개념영역이 정서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정서는 감성에 내포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성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심리학적 개념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감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경계가 모호하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감성을 좁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정서와 동일시하고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정서의 개념을 포함하는 비인지적인 내적 상태 (non-cognitive internal states)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⁶⁾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여러 감정들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며 정서와 감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두어 이러한 용어의 선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

심리학에서는 사고와 감정을 양극단에 두는 즉,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보는 오랜 전통적 관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감정을, ‘지배하지 않으면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될 것’, 이라고 여겼으며 ‘대뇌의 통제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효과적인 적응의 결여로 인한 혼란스럽고 본능적인 반응’, ‘개인에게 일어나는 심각한 혼란’ 등으로 감정을 규정한다.⁷⁾ 이와 같은 관점은 감성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하며 감성이 이성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감성/정서를 바라보는 입장은 정서를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며 관리하는 것’, ‘생명체의 총 질서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능과 상반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그 자체가 더 높은 차원의 지능’인 것으로 규정한다.⁸⁾ 이러한 견해는 감성과

2) Peter Salovey and John D. Mayer,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 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6), p. 107.

3) Goleman, op. cit., p. 289.

4)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5), 12쪽.

5) Carroll E. Izard,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Plenum Press, 1991), p. 55.

6) 정찬섭, “감성과학의 심리학적 측면.” 한국감성과학회지 1, no. 1 (1998), pp. 19-24.

7) Peter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ay to be Smart?"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6), p. 13에서 재인용.

8) Ibid., 재인용.

이성이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반 독립적인 능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현대의 감성/정서이론들은 정서가 인지적 활동을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한다고 보고 있다.⁹⁾ 셀로비 (Peter Salovey)는 정서를 '적응적 (adaptive)이고 기능적이며 인지적 활동과 후속행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¹⁰⁾ 다시 말해서, 감성과 이성은 상반된 것이 아니며 감성은 인간의 사고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감성 자체의 기능을 인정하는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은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

2. 감성지능의 개념과 이론

감성지능 또는 정서지능의 용어와 개념, 그리고 체계적인 이론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 미국의 심리학자들인 뉴햄프셔대학의 메이어 (John D. Mayer)와 예일대학의 셀로비에 의해서이다. 이후 이들의 이론과 그 동안 감성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1995년 골먼의 저서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 소개됨으로써 새로운 지능의 개념으로서 감성지능에 관한 이해와 관심은 급속하게 높아졌다.

감성지능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이후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 (mind)을 인지 (cognition), 정서 (affect), 동기 (motivation)의 3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려 한다. 인지적 영역에는 기억, 추론, 판단, 추상적 사고 등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는데 심리학자들은 정신활동의 인지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능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지능의 정의는 다양하다.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성립될 수 없는지가 결정되어진다. 만일 지능의 의미를 언어능력과 수학/논리능력 또는 기억력이나 추리력 등을 측정하여 이해와 사고의 일반능력을 나타내는 즉, 지적수준을 평가하는 데에 둔다면 '감성'과 '지능'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개념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웨슬러 (D. Wechsler)의 정의에 따라 지능을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집합적이고 총체적인 능력"으로¹¹⁾ 정의를 내린다면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웨슬러의 정의는 지능에 대한 여러 정의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현재 가장 일반적인 지능의 정의로 인정된다. 지능은 단일능력을 의미하

9) John D. Mayer and Peter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6), p. 188.

10) Salovey, op. cit., p. 13.

11) Mayer and Salovey, op. cit., p. 189에서 재인용.

는 것이 아니라 여러 능력들의 포괄적 세트에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감성지능은 웨슬러에 의하여 정의된 지능의 개념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¹²⁾

감성지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능 즉, 일반지능 혹은 학업지능에 대비되어 사용되는데 자주 감성지수 (Emotion Quotient: EQ)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 IQ)가 정신적 능력의 인지영역을 평가하는 척도라면 감성지수는 정신적 능력의 정서영역을 평가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성지수의 측정은 지능지수의 측정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감성지수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감성의 하위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지능지수처럼 단순한 하위영역 검사의 지수를 합산함으로써 알 수 있는 수치가 아니며, 또한 감성지수는 지능지수를 측정하는 것처럼 정답을 찾는 문제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성지수는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개인의 행동 능력, 기술, 방식 등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게 된다.

메이어와 섀로비가 감성지능의 개념과 이론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을 때, 그들은 감성지능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를 살피고, 그것들을 식별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¹³⁾ 이후에 메이어와 섀로비는 감성지능의 정의에 있어 모호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보완하고 감정에 관한 사고 부분을 첨가하여 다음과 같이 감성지능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감성지능은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 평가,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도울 수 있도록 감성에 접근하고/접근하거나 감정을 일으키는 능력; 정서적 정서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 지적 성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¹⁴⁾

이 수정된 정의에는 정서가 사고를 더욱 지능적으로 만들어 주며 인간이 정서에 대하여 지능적으로 사고한다는 개념들이 결합되어 있다.¹⁵⁾ 메이어와 섀로비 이론의 감성지능 모형에는 3가지 필수 구성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 *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
- *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
- * (사고, 추론, 문제해결, 창의성 등에 있어서)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¹⁶⁾ 이것을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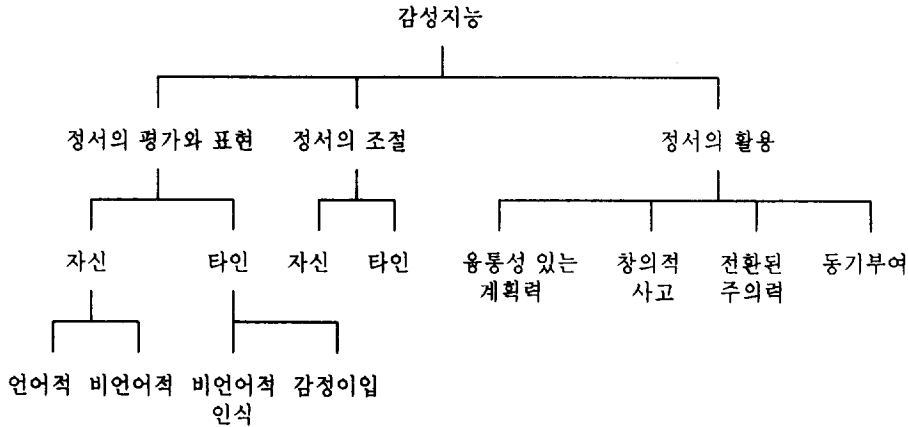
12) Ibid., p. 190.

13) Salovey, op. cit., p. 15.

14) Salovey and Mayer, op. cit., p. 116.

15) Ibid., p. 109.

16) Salovey, op. cit., p. 15.



<표 1> 감성지능의 구조¹⁷⁾

이들에 의하면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 조절하여 사회 속에서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기술 혹은 능력을 의미한다.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지능지수가 기여하는 비율은 많아야 20%정도이며 나머지 80%는 다른 영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¹⁸⁾ 감성지능은 그 동안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일반지능/학업지능에 대한 회의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최근 새로운 지능의 개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감성지능은 기존의 지능지수나 정신능력의 인지중심 심리학과 교육학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기존의 일반지능/학업지능과 상반되는 능력이 아닌 감성을 적절히 다루는 별개의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성지능은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서 감성지능은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며 정서의 기술인 것이다.

3. 감성지능의 기원: 사회지능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은 최근 새로운 개념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실 오랜 전통을 지닌

17) Ibid., p. 29.

18) Goleman, op. cit., p. 34에서 재인용.

개념이다. 쏘다이크 (Edward L. Thorndike)는 이미 1920년대에 일반지능과는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간 관계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능력인 사회지능 (Social Intelligence)이 지능의 한 측면이 된다고 제안하였다.¹⁹⁾ 그러나 이 개념은 이후 무용한 개념으로 여겨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제기되었다.

한 예로,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스텐버그 (Robert Sternberg)는 사회적 능력 (Social Competence)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스텐버그는 사회적 지능이란 학문적 능력과는 구별되며 삶의 실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라고 쏘다이크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스텐버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지능은 실제지능 (Practical Intelligence)으로 지능적인 사람이란 학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능력도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다.²⁰⁾

이와 같이 심리학자들은 지능지수검사로 측정되는 능력 이외의 다른 지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가드너 (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Multiple Intelligences)을 들 수 있다. 그는 그의 저서 『정신의 구조』 (*Frames of Mind*, 1983)에서 7개의 다양하고 중요한 폭넓은 지능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인성지능 (Personal Intelligence) 영역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과 자기이해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감성지능에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관계지능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자기이해지능은 자기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성지능은 쏘다이크가 제안한 사회지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메이어와 샬로비에 의하여 감성지능/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이 사회지능이라는 개념으로, 다중지능이나 실제지능이라는 용어로, 기존의 지능지수검사로 측정되는 능력과는 다른 인간의 정신능력들이 존재함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지능의 재개념화 과정에서 즉, 지능은 단일 요소가 아닌 다면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능의 개념이 변화되는 가운데 제기된 감성지능은 사실 그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닌 것이다.

Ⅲ. 감성에 관련된 뇌 연구

본 장에서는 감성지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감성에 관련된 뇌 연구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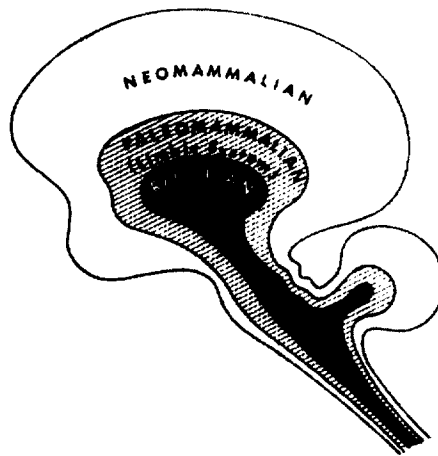
19) Ibid., p. 42.

20) R. J. Sternberg, *Beyond I.Q.*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보고자 한다.

인간의 뇌에 관한 신경과학 연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실험 연구기술들이 개발되어 최근의 신경과학연구는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신경과학분야의 연구결과들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인간의 뇌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뇌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뇌의 이론 혹은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맥린 (Paul MacLean)은 “A Mind of Three Minds: Educating the Triune Brain”에서²¹⁾ 인간의 뇌는 세 개의 뇌 (the reptilian brain, the old mammalian brain and the new mammalian brain)로 구성되어 있다는 삼분 뇌 이론 (Triune brain theory)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뇌의 형성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구성을 아주 쉽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삼분 뇌 이론²²⁾

최초의 뇌의 형성 (reptilian brain)은 주로 뇌간 (brain ste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뇌의 가장 밑에 위치해 있으며 뇌의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오래된 부분이다. 이 부분의 역할은

21) Paul D. MacLean, "A Mind of Three Minds: Educating the Triune Brain." The 77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p. 308-42.

22) Ibid., p. 309.

신체의 생존과 유지에 관계한다.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 (old mammalian brain)은 변연계 (limbic system)라 불리는 뇌의 중심 부분으로 처음 형성된 뇌의 위 부분에 위치한다. 이 부분은 감성적이고 행동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자기인식, 특히 신체 내적 상태의 인식과 감각에 대한 인식의 역할에 관계한다. 마지막으로 형성된 뇌 (new mammalian brain)는 변연계를 둘러싸고 있는 인지 활동의 중추가 되는 대뇌 피질이다. 대뇌 피질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와 지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보존과 산출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맥린의 모델에 의하면 이러한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인간의 뇌는 복잡한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운동 영역, 감성 영역, 그리고 인지 영역을 담당하는 이들 세 부분들은 각각의 기능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의 완전체가 된다는 것이다. 맥린의 이론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로 교육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

감성은 변연계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변연계는 인간의 감성적, 행동적인 활동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감성적인 반응과 행동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이성적인 사고의 중추역할을 하는 대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감성과학 연구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

여러 세포구조들로 구성되어있는 변연계는 수많은 연결회로들에 의해 대뇌의 각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회로들을 통해 대뇌 즉, 이성 뇌와 변연계 즉, 감성 뇌는 서로 상호 작용하게 된다. 변연계는 학습과 기억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감성적인 문제는 변연계의 편도체 (amygdala)가 담당하고 정보를 저장하여 기억하는 것은 변연계의 해마 (hippocampus)의 기능이다. 인간의 뇌에서 편도체를 제거하면 감성능력이 무기력해지는 감성문맹 (affective blindness)상태가 된다.

간뇌 (diencephalon)에 위치한 시상 (thalamus)은 여러 지각된 신호들을 그 기능을 수행하는 대뇌의 적절한 부위들 — 예를 들어, 시각신호는 시각피질 (후두엽)로, 청각신호는 청각피질 (측두엽)로 — 이나 대뇌의 중심부로 보내주는 중요한 신호전달 장소라 할 수 있다. 시상에서 신호를 전달받은 대뇌는 변연계와의 연결회로를 통해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고에 대하여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가지게된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은 대뇌와 변연계 간의 연결회로가 강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뉴욕대학의 신경과학자인 르두 (Joseph E. LeDoux)는 지각된 신호들이 시상에서 대뇌를 거치지 않고 변연계로 직접 전달되는 신경회로를 처음으로 입증하였다. 르두는 시상에서 대뇌로 가는 신경회로 이외에도 시상에서 직접 편도체로 가는 신경회로를 규명함으로써 때때로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대뇌의 신호전달과정은 수많은 신경회로들의 활동이 요구

되기 때문에, 시상—대뇌—편도로 이어지는 신경회로는 시상—편도로 직접 전달되는 연결회로보다 자연히 느릴 수밖에 없다. 즉, 지각된 신호의 일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시상에서 직접 편도로 전달되어 대뇌의 이성적 판단보다 빠른 감성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때로는 불완전할 수 있는 감성적인 판단이지만 감성적인 긴급상황에서는 인간은 변연계에 의지하게 된다.²³⁾

이와 같이 감성은 때때로 상황에 따라 이성을 압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성은 이성을 도와 올바른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어 준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IV. 음악교육의 역할

현대의 음악교육은 심미적 음악교육 (Aesthetic Music Education)을 지향한다. 심미적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음악적 심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미적 음악교육은 음악의 미적 특성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심미적 음악경험은 음악적 심성 혹은 음악적 정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음악적 정서’란 단순히 음악에 관계된 정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서는 인지적 활동과 후속행동을 구성하는 실제적인 능력 혹은 기술로서 표면화되기 때문에 음악교육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사회 속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심미적 음악교육의 실제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악교육과 감성지능

음악의 본질 혹은 가치는 음악이 지니는 감성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음악은 인간의 내재된 감성을 일깨워준다. 즉, 음악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음악적

23) Joseph E. LeDoux, "Emotional Networks in the Brain." Handbook of Emotions, ed. by Michael Lewis and Jeannette M. Havilan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3), pp. 109-15.

Goleman, op. cit., pp. 13-29.

Arthur C. Guyton, Basic Neuroscience, 2nd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1991), pp. 19-24.

반응은 대부분의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음악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예술이기에 인간은 음악을 통하여 전달된 이러한 감정과 사고를 재경험 혹은 간접 경험하게됨으로써 보이는 반응이다. 예술표현의 지각과 반응, 느낌의 경험, 흥미, 태도, 가치관, 인생관 등은 교육목표 분류학의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일차적인 목적은 정의적 영역의 개발에 있다고 하겠다.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의적 영역의 개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셀로비는 그와 메이어가 규정한 감성지능의 기본정의에 가드너의 인성지능을 포함시켜 감성지능에는 자신의 감정인식능력, 감정조절, 자기 동기부여, 다른 사람의 감정인식 (공감능력), 인간관계능력 등의 5가지 주요영역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²⁴⁾ 다음은 감성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 하위영역들이 음악교육에 의하여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자신의 감정인식능력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각/인지하는 인식능력은 감성지능의 기반을 이루며 이 능력은 심리적인 통찰력과 자기이해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직장문제와 같은 개인적 결정의 순간에 믿을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음악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은 음악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들의 감정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 능력이 필요한데 표현 능력으로는 언어나 음악 같은 매개체가 사용된다.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하여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경험하게 하고 경험된 감정 상태를 올바르게 지각/인지하게 하며, 이를 음악으로 또는 언어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감정인식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랭거 (Susanne K. Langer)는 음악을 '감정적인 삶의 소리의 유사체'로,²⁵⁾ '상징적인 느낌의 형태'로 보았다.²⁶⁾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삶을 느낌의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풍부한 느낌의 경험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감정과 정서, 심리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24) Goleman, op. cit., pp. 43-44.

25) Susanne Langer, *Feeling and Form*, (New York: Charles Scribner's, 1953), p. 27.

26) ———, *Philosophy in a New Key*, 3r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60), pp. 238-40.

2) 감정조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전환하여 다루는 능력으로 자기인식능력에 기초하여 구축된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자신의 감정조절 방법을 찾아내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고통스러운 순간을 빨리 극복한다.

음악이 주는 기쁨, 평안, 위로 등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음악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된다. 때로는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 감상하게되는 음악도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는 악곡을 선택하여 더욱 더 슬픔이라는 정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자체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감상을 통해서 또는 음악연주를 통해서, 음악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음악교육은 음악적 표현을 위해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감정을 바르게 인식할 줄 알게 하며, 적절한 음악적 방법과 음악적 어법을 통하여 정제되고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감정과 사고를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적 감정은 정돈되고 조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 음악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자기 동기부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감정을 잘 정돈하는 것은 주의집중, 동기부여, 통제력, 창의성 등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만족을 지연시키고 충동을 억누르는 자기감정의 통제는 모든 종류의 성취에 기초가 된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은 하든 생산적이며 유능하다.

1968년부터 1974년까지 6년 동안 스탠포드대학 부설 유치원의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흥미로운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4세 유아들에게 머쉬멜로우와 같이 유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과자 혹은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보여주며, 만일 연구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보상으로 두 개가 주어지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방을 나갔다. 당장 먹고 싶은 혹은 가지고 싶은 충동을 참아낸 유아들에게는 두 개의 보상이 주어졌음은 물론이다. 이 연구는 10여 년 후 실험대상이었던 유아들을 추적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4세 때 충동을 참지 못한 유아들과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알았던 유아들간의 감성적, 사회적, 학업적 능력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세의 어린 나이에도 충동을 참아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보여준 유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렇지 않았던 유아들에 비하여 보다 높은 감성적 사회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좌절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알았던 유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유아들에 비하여 이후 미국의 대학학력 적성검사인 SAT (Scholastic Aptitude Test)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학업능력에 있어서도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²⁷⁾

예술음악과 비예술음악의 차이는 기대되는 음악적 패턴의 의도가 충족되는 시간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음악은 만족이 절정에 이르기까지 기대되는 음악적 패턴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하여 우회로를 거쳐 기대를 지연시키지만 비예술음악은 기대되는 음악적 패턴을 빠르게 충족시킴으로 거의 불확실한 요소를 가지지 않는다.²⁸⁾ 다시 말해서 예술음악은 음악적 패턴의 기대감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마침내 기대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미적 가치와 예술적 표현이 더 빛을 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음악교육에 있어 예술음악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는 이러한 예술음악의 미적 가치에 있다고 하겠다. 일시적 만족이나 기대감을 지연시킴으로 더 큰 희열을 얻을 수 있는 예술음악이 지닌 가치와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는 것은 예술음악의 미적 가치에 반응하는 감수성을 길러주는 심미적 음악교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경험인 것이다. 모든 종류의 성취에 기초가 되는 자기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예술음악의 미적 가치에 반응하는 음악적 심성의 개발로 향상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감정인식 (공감능력)

감정의 자기인식에 기초한 또 다른 능력인 감정이입 (empathy)은 인간관계 기술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잘하며 이를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것은 이타주의의 기반으로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이다.

음악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음악의 의미 있는 미적 경험은 음악이 표현하는 것을 듣고 반응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다양한 악곡의 경험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심미적인 안목이 수반될 때 음악이 표현하는 감정과 사고에 반응하게되는 음악적 심성은 최대한으로 개발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음악이 표현하는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느낌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감정이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악곡을 들을 경우, 감상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느낌의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음악의 이해는 악곡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 또는 연주

27) Yuichi Shoda, Walter Mischel, and Philip K. Peake,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no. 6 (1990), pp. 978-86.

28) Harold F. Abeles, Charles F. Hoffer, and Robert H. Klotman,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2nd ed., (New York: Schirmer Books, 1994), pp. 80-81.

자의 의도를 이해하려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무관하지 않는데 음악은 이러한 감정이입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

5) 인간관계 능력

인간관계 능력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인기, 지도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교류를 유지하는 사회적 인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개인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음악은 동시에 가장 사회적인 예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음악을 통하여 경험된 느낌과 즐거움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유아기에서부터 나타난다. 음악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개인으로서 또한 다양한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들 자신을 확인시킬 수 있게 하며 그룹 음악활동은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의 발달로 이어진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사회성의 발달과 함께 인간관계 능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성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 감성지능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들에 있어 그 각각의 기술들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위 영역들의 기술 또는 능력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즉, 어떤 사람은 자기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데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감성지능과 관련된 기술들은 교육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정서기술은 유아기부터 가정에서 좋은 가족관계를 가짐으로 습득될 수 있으며, 표준화된 교과과정에 감성교육을 통합시킴으로, 또한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개발될 수 있다.²⁹⁾

골먼은 그의 저서 「감성지능」에서 창의성, 사회성, 갈등해결 등과 관련된 감성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감성지능의 개념과 그 이론을 세운 메이어와 섀로비는 감성교육 프로그램이 감정에 대해 올바른 방식 혹은 바람직한 방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목표가 명확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³⁰⁾ 감성교육은 잘못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지를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오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프

29) Salovey and Mayer, op. cit., pp. 130-34.

30) Ibid., p. 134.

로그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감성지능 자체를 단기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향상시켜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음악교육은 감성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감성지능을 이루고 있는 하위 구성요소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음악교육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는 능력들이다. 음악적 심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음악에 대한 반응의 정도 즉,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음악적 자극에 음악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켜줌으로써 개인의 감성지능은 향상될 수 있다. 음악적 정서의 개발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실제적인 사회적 능력에 관계하며 음악교육은 이러한 정서의 기술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다.

2. 음악교육과 학업지능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들은 음악교육이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의 뇌가 음악에 자극 받을 때 신경세포들간의 새로운 연결, 즉 연결부 (synapse)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dendrites)의 확장이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모든 유형의 지적능력에 관계하는 것으로³¹⁾ 이러한 신경세포들의 연결과 확장이 많을수록 지적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령 (Xiaodan Leng)과 쇼 (Gordon Shaw)는, 음악은 언어 이전의 언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기 음악교육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³²⁾

음악교육은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어린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음악교육은 전뇌 (全腦)/전심 (全心)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는 보고한다. 이 시기의 음악교육은 대뇌의 양반구를 고르게 발달시켜 전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음악가들은 비음악가들에 비해 음악의 지각/인지에 있어 대뇌 좌/우반구를 모두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음악교육이 대뇌 좌/우반구를 균등하게 발달시켜 주는 것을 입증한다.³³⁾

위스콘신 대학의 로셔 (Frances Rauscher)와 쇼 연구팀은 피아노 연습이 유아들의 시/공간

31) Susan Black, "The Musical Mind." The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184, no. 1 (1997), p. 21.

32) Xiaodan Leng and Gordon L. Shaw, "Toward a Neural Theory of Higher Brain Function Using Music as a Window." Concepts in Neuroscience 2, no. 2 (1991), pp. 229-58.

33) Yunhee S. Ko, The Effect of Neurological Research on Aesthetic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9).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험은 만 3-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2년간 실시되었다. 유아들은 피아노 개인지도, 컴퓨터 개인지도, 노래지도, 그리고 아무 지도도 받지 않은 네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그 결과, 피아노 개인지도를 받은 유아들이 다른 그룹의 유아들에 비하여 시/공간 지각능력이 뛰어나게 향상되었다. 이것은 과학과 수학 같은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³⁴⁾

장기간의 음악교육의 영향에 관한 보고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1998년에 한 연구팀은 음악교육이 언어 기억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 실험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12세 이전에 적어도 6년 이상 악기를 연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언어 기억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지속된 음악교육이 언어 기억능력의 향상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⁵⁾

학습과정에서 감성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인간의 정서 상태가 정보를 보존하는 뇌의 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음악교육과 학업지능 향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장기간의 음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의 경우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들의 경우보다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음악교육이 학업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많은 실험들과 일치한다.

3. 음악교육과 도덕지능

최근 감성지능과 더불어 관심을 끌고있는 또 다른 새로운 지능의 개념으로 도덕지능 (Moral Intelligence)이 제기되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와 사회윤리학과와 콜즈 (Robert Coles)는 그의 저서 『아동의 도덕지능』 (*The Moral Intelligence of Children*, 1997)에서 도덕지능이란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지니며 관심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아이들의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동의 도덕지능은 태어나면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형성되는 성품으로 인간 정신의 인지, 정서 영역과 함께 정신활동의 제 3의 영역이라고 한다.

34) Frances H. Rauscher et al., "Music Training Causes Long-Term Enhancement of Preschool Children's Spatial-Temporal Reasoning." *Neurological Research* 19 (1997), p. 2-8.

35) Agnes S. Chan, Yim-Chi Ho and Mei-Chun Cheung,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Memory." *Nature* 396 (1998), p. 128.

36) Richard L. Bucko, "Brain Basics: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 *ERS Spectrum Summer* (1997), p. 24.

37) Ella Wilcox, "Music is Key." *Music Educators Journal* 82, no. 4 (1996), p. 6.

자기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고 감정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인간관계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분명히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 혹은 기술들은 지능지수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선을 행하는 능력도 악을 행하는 능력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감성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특히 이 과정을 잘 다룰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정서를 활용할 줄 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감성지능을 반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게되는데 이들은 나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반사회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³⁸⁾ 다시 말해서 감성지능이란 좋은 목적뿐만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범죄자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데 그 기술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감성지능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도덕적으로 중립적임을 의미하지만, 감정이입에 관해 연구하는 호프만 (Martin Hoffman)은 감성지능의 한 영역을 이루는 감정이입 즉 공감능력에서 도덕성의 근원을 찾는다. 감정이입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여러 국면의 기저를 이룬다.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입의 수준은 그들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감정이입적인 사람일수록 윤리적 원칙을 따른다고 한다.³⁹⁾ 감성능력이 행위로서 나타나게되는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인 감정이입은 바로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교육목표 분류학의 정의적 영역은 음악교육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음악과 교육이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 교육을 지향하며,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기⁴⁰⁾ 때문이다. 크래스울 (D. R. Krathwohl)과 블룸 (B. S. Bloom)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를 감수—반응—가치화—조직화—가치에 의한 인격화로 분류하여 이 5 단계를 학습 위계로 제시하였다. 가치관의 형성은 교육의 정의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정과 결과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만이 진정한 가치관이 형성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가치에 의한 인격화 단계 (characterization by a value or value complex)는 내면화된 가치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인생철학, 세계관의 가치체계가 이 단계에 속한다.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학교교육으

38) Mayer and Salovey, op. cit., p. 209.

39) Goleman, op. cit., pp. 104-6.

40)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8), p. 28.

로는 대개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음악교육은 정의적 영역의 이 마지막 단계를 향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관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도덕성의 근원을 감정이입 즉, 공감능력에서 찾을 수 있기에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음악교육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도덕성을 인간 정신의 제 3의 영역으로 독립을 시키는 정신활동의 정서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중요한 것은 도덕성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듀이 (John Dewey)는 도덕성이란 추상적/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상황에서 공동생활을 이끌어가는 힘,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추진력과 습관이라고 하였다.⁴¹⁾ 행동으로 나타나는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 즉 도덕적 행위는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 인생관에 따르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개인의 도덕지능의 수준을 보여준다.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음악과 교육은 음악적/심미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음악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교육목적에 비추어서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기도 하였으며 상실되기도 하였다. 지난 20세기 이성의 시대에 감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음악과 교육은 주요교과목이 아닌 기타교과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21세기가 감성의 시대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21세기가 원하는 것이 개인의 창의성이라면, 그리고 전인계발을 지향하며 인성과 도덕성을 중요시한다면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적에 가장 잘 부응하는 교과는 음악교과가 아닐까 한다. 감성과 도덕성/윤리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음악과 교육은 시대의 목적에 적합한 주요교과목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음악교사들 스스로가 음악과 교육을 기타교과목으로 인정을 한다면 음악과 교육은 21세기에도 결국 기타교과목이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소론에서 음악교육이 감성지능, 학업지능, 도덕지능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자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 심미적 음악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음악교육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사회 속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41) John Dewey, John Dewey on Education, ed. Reginald D. Archambaul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p. 137-38.

전인교육이란 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 이것이 개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고 개개인이 사회에서 바른 사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과 교육은 전인교육의 한 부분에 관계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교육인 동시에 개인의 총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음악과 교육은 일반적으로 음악교육이 관계한다고 여기는 인지적, 감성적, 심동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인 성장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8.
- 김경희. 점서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995.
- 정찬섭. "감성과학의 심리학적 측면" 한국감성과학회지. 1, no. 1, pp. 19-24, 1998.
- Abeles, Harold F., Charles F. Hoffer, and Robert H. Klotman.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2nd ed. New York : Schirmer Books, 1994.
- Black, Susan. "The Musical Mind" The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184, no. 1, pp. 20-22, 1997.
- Bucko, Richard L. "Brain Basics: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 ERS Spectrum. Summer, pp. 20-25, 1997.
- Chan, Agnes S., Yim-Chi Ho and Mei-Chun Cheung.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Memory" Nature. 396, p. 128, 1998.
- Coles, Robert. The Moral Intelligence of Children. New York : Random House, 1997.
- Dewey, John. John Dewey on Education. Ed. Reginald D. Archambault.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Gardner, Howard.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 Basic Books, Inc., 1983.
- Goleman, Daniel.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1995.
- Guyton, Arthur C. Basic Neuroscience. 2nd ed.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mpany, 1991.
- Izard, Carroll E.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 Plenum Press, 1991.
- Ko, Yunhee S. The Effect of Neurological Research on Aesthetic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9.
- Krathwohl, D. R., B. S. Bloom, and B. B. Masia.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New York : David McKay Company Inc., 1964.
- Langer, Susanne. Feeling and Form. New York : Charles Scribner's, 1953.
- _____. Philosophy in a New Key. 3rd ed.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1960.
- LeDoux, Joseph E. "Emotional Networks in the Brain" Handbook of Emotions. Ed. by

- Michael Lewis and Jeannette M. Havilan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1993.
- Leng, Xiaodan and Gordon L. Shaw. "Toward a Neural Theory of Higher Brain Function Using Music as a Window" Concepts in Neuroscience. 2, no. 2, pp. 229-58, 1991.
- MacLean, Paul D. "A Mind of Three Minds: Educating the Triune Brain" The 77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08-42, 1978.
- Mayer, John D., and Peter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pp. 183-229, 1996.
- Rauscher, Frances H., Gordon L. Shaw, Linda J. Levine, Eric L. Wright, Wendy R. Dennis and Robert L. Newcomb. "Music Training Causes Long-Term Enhancement of Preschool Children's Spatial-Temporal Reasoning" Neurological Research 19, pp. 2-8, 1997.
- Salovey, Peter.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ay to be Smart?"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pp. 5-34, 1996.
- Salovey, Peter, and John D. Mayer.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pp. 103-53, 1996.
- Shoda, Yuichi, Walter Mischel, and Philip K. Peake.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no. 6, pp. 978-86, 1990.
- Sternberg, R. J. Beyond I.Q.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Wilcox, Ella. "Music is Key" Music Educators Journal. 82, no. 4, pp. 6-11, 1996.

ABSTRACT

An Understand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Role of Music Education

Yunhee Seung

The value and the importance of the purely rational ability or academic ability measured by the Intelligence Quotient (IQ) Test has been emphasized during the 20th century. However, it is clear that there is more to success in life than what we have traditionally meant by intelligence.

Recently, the term emotional intelligence has been us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s well as in psychology. John Mayer and Peter Salovey propose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motional intelligence in 1990. According to them, emotional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perceive emotions, to access and generate emotions so as to assist thought, to understand emotions and emotional meanings, and to reflectively regulate emotions so as to promote both better emotion and thou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cept and the theor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to show the practical role of aesthetic music education.

The primary purpose of aesthetic music education is to develop the musical mind, possessed by every human being, to its highest possible level. The development of the musical mind/emotion is one of the best ways to enhance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intelligence and moral intelligence. Our lives can be improved by the musical mind/emotion which enhances the abilities or skills required in social situation.

Scientific research findings strongly support the place of music in school.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aesthetic music education was discussed and its justification as a core subject in the 21th century was insisted.